



조안영 조안성형외과 원장

눈매만 교정해도 호감형 인상

눈밑지방 재배치 다크서클 해결
‘눈썹 밀 거상술’로 동안 효과
눈 돌출여부에 쌍꺼풀 모양 다양

‘뭍이 천 남이면 눈이 구백 냥’이란 말이 있다. 눈의 기능인 ‘보는 것’이 중요하단 이야기지만, 반대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단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관상학에서도 같은 말이 흔히 인용된다.

눈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곳이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눈을 들여다보며 눈인사를 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눈빛으로 미뤄 짐작하기도 한다.

그래서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눈은 기능뿐 아니라 생김새 또한 매우 중요하다.

눈의 생김새가 그 사람의 성격, 또는 현재의 기분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괜한 오해를 사는 일도 종종 있어서다.

흔히 화가 나 보이거나 강한 인상을 주는 눈매는 ▲눈썹을 치켜뜨고 ▲바깥쪽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거나 ▲몽고주름으로 내측 눈꼬리가 아래로 당겨지는 양상을 띠며 ▲전반적으로 가늘고 뾰족한 모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감을 주는 눈매는 크고 둥글거나 반달 모양이며 눈과 미간 사이 균형이 잡혀 전 반적으로 시원해 보이는 인상을 주는 특징이 있다.

강한 인상이 콤플렉스라면 기본적으로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사항을 개선해 호감을 주는 네가지 특징이 가깝도록 하면 된다.

조안영 조안성형외과 원장으로부터 눈 성형에 대한 궁금증을 들어봤다.

◇**눈매만 교정해도 호감형 인상으로 탈바꿈**＝사람이 눈썹을 치켜뜨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가 나 있거나 언짢아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된다. 눈썹을 치켜뜨는 행동은 기분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 눈뜨는 근육(상안검거근)의 기능이 약하거나 근육에 유착이 있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이나 림파선 조직이 과도한 경우, 습관적으로 치켜뜨는 경우 등이다.

이를 교정하는 수술을 흔히 눈매교정이 라고 부르는데, 앞서 열거한 원인을 제거하고 눈뜨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수술이다.

또 바깥 눈꼬리가 올라가는 경우는 뒤트임(외안각 성형술), 눈의 내측 꼬리가 아래로 당겨진 경우는 앞트임(내안각 성형술)으로 교정할 수 있다. 특히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멀 경우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도



조안영 조안성형외과 원장이 진료실에서 눈 성형수술을 상담하고 있다.

〈조안성형외과 제공〉

있는데, 이럴 때도 앞트임이 유용하다.

이와 함께 몽고주름 등으로 가늘게 찢어져 눈꼬리가 올라간 눈모양은 앞트임으로 몽고주름을 풀어 내측 눈꼬리를 올려주고 눈매 교정으로 내측의 눈을 키워 반달모양을 만들면 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뒤트임으로 외측 눈꼬리를 더 내려줘 이를 보완할 수도 있다.

◇**쌍꺼풀 수술 부담스러운 어르신, ‘눈썹 밀 거상술’로 해결**＝쌍꺼풀이 있는 어르신 대부분은 눈꺼풀이 많이 처지게 된다.

쌍꺼풀 수술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나이 들어 수술하면 인상이 강해져 ‘못쓰게 된다’는 주변의 말만 듣고 수술을 망설이는 어르신이 많다.

이럴 경우엔 ‘눈썹 밀 거상술’이란 수술을 하면 된다.

눈썹 밀 거상술은 눈썹의 길이만큼 처진 피부를 눈꼬리 부위까지 충분히 잘라낼 수 있으며, 눈꺼풀 피부를 골막에 고정해 눈꺼풀 피부가 다시 처지는 것을 상당히 늦출 수 있는 수술법이다.

‘눈 성형’을 일반적으로 ‘쌍꺼풀 수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수술 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다. 수술명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같은 수술명이라고 해도 수술 내용을 달리하는 수술도 많다.

◇**다크서클 수술, 눈밑지방 제거 신중**

하게 선택＝눈 아래쪽 다크서클(눈밑주름)은 파근해 보이거나 아파 보이는 인상을 주는 원인 중 하나다. 다크서클의 주원인은 눈밑지방이 돌출되거나 눈밑 피부에 착색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료는 눈밑 피부나 결막절개를 통해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하는 수술 방법과 착색한 피부에 레이저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다. 또 이를 병행하기도 한다.

다양한 수술법이 있는 데 눈밑지방제거술인 하안검 성형술은 일반적으로 속눈썹 아래 피부절개를 하는 방법으로 흉터와 안검외반(눈꺼풀 이상)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막절개 눈밑지방을 재배치하는 수술법이 안검외반의 가능성을 줄이고 흉터를 보이지 않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돋보인다.

더불어 하안검 성형술과 달리 수술 직후 피부에 대한 레이저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눈 성형, 콤플렉스 개선해 자신감 되찾는 게 중요**＝눈 성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원하는 ‘눈 모양’과 ‘눈의 구조’다.

성형수술의 목적이 콤플렉스의 개선인 만큼 환자가 원하는 눈의 모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개인의 눈 구조에 따라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의 돌출 정도

다. 동양인, 특히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안와골에서 안구가 살짝 돌출된 구조를 갖고 있다.

안구가 들어간 사람의 눈 모양과 돌출된 사람의 눈 모양은 차이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쌍꺼풀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더라도 라인이 얇아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처지기 쉽다. 쌍꺼풀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속쌍꺼풀이 뒤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경우다. 반대로 돌출된 경우는 라인이 두꺼워 보이며, 이른바 ‘소시지’처럼 보인다는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연예인 누구처럼 똑같이 해달라는 요구를 접할 때는 참 난감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마다 언급하는 것이 성형수술은 새롭게 장착하는 과정이 아니고 고쳐 쓰는 수선의 개념이라는 말이다.

수술 결과는 본인의 수술 이전모습과 비교해야 의미가 있다. 미(美)라는 것은 주관적인데, 남과 비교해서는 수술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절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소하더라도 자신의 콤플렉스를 개선해 자신감을 되찾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눈 성형이 필요한 이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태국 멕코믹 병원 박진영 선교사 초청 강연



태국 멕코믹병원 방문단이 최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병원 의료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국 의료진, 조선대병원 진료시스템 체험

태국 멕코믹병원 방문단이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홍)에서 선진 의료기술을 체험·견학했다.

3일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태국 멕코믹병원 아짚어의 병원장과 껀 간호 부원장, 외딧 맥케이나병원 부원장, 아티탄 콰이강기독병원 의사를 비롯한 선교사 2명 등 7명이 조선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태국 방문단은 박찬국 조선대학교병원 부원장의 안내로 음압병동 및 하이브리드혈관센터 등 최신 의료장비와 시설을 둘러보고, 선진 진료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청취했다.

이들은 또 호남권역재활병원을 방문해 문경래 호남권역재활병원장을 비롯해 문경래 재충형 재활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최첨단 재활기구들을 직접 체험하고 보조기구

를 견학하기도 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가 전공인 아짚어의 멕코믹병원장은 문경래 교수(소아청소년과)와 소아재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기도 했다.

(주)동양의료기 김선창 대표 이사는 이번 태국 방문단에게 멕코믹병원에서 소중하게 쓰일 의료물품을 기증했다.

아짚어의 멕코믹병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조선대병원과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최신 의료장비와 시설 및 진료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소외된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태국 멕코믹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원본 반드시 보관

의료법 개정…조작 예방

앞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의 원본은 물론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도 반드시 보존하고 환자가 요구할 때는 볼 수 있게 하거나 발급해줘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잘못을 감추기 위해, 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번달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부를 포함해 진료기록부 원본과 원본에 추가로 써넣거나 내

용을 바꿀 경우 추가기재·수정본까지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부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할 때는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진료기록부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기를 원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화 의료진간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서류다. 이 때문에 진료기록부 수정여부는 분쟁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의료진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보려면 이런 진료기록부의 원본은 물론 추가기재 또는 수정사항을 모두 보존해야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진료기록 위조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8억7천7백만원 (평당 170만원)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조정가)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비금도,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거문도,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4900만원 (조정가)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800만원(조정가)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